

질문.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임의로 제사를 드렸을 때에는 노하셨는데, 왜 다윗이 제사를 드렸을 때에는 그러지 않으셨을 까요? 다윗도 레위지파나 제사장 계열이 아닌데, 왜 다윗을 보고 노하시지 않으셨으며 왜 다윗은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하면 전도사님께서 잘 이해하실 수 있을지 고민하였습니다. 이 질문을 교회의 학생이었다면 정말 설명하기가 까다로웠을 거예요. 장년 성도가 질문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오해없이 설명을 해야하나 저도 엄청나게 고민했을 겁니다. 사실 그 고민을 하루 온종일 했습니다. 곧바로 대답을 드리고 싶었지만, 일단 꼭 참고 최대한 평신도들도 잘 이해할 수 있는 말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쉽지 않네요. 그래도 답이 늦어지면 안될 것 같아서 주일이 되기 전에 먼저 대답을 올립니다.

더 좋은 답이 있다면,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두가지의 대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좀 학문적인 대답이고, 다른 하나는 만약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신앙적으로 어떻게 대답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입니다.

\*\*\* 첫번째 \*\*\*

일단 이 질문은 전도사님께서 성경을 읽으시다가 궁금해서 올린 질문이라는 가정과 또, 전도사님께서 **학교수업을 잘 소화하였다**는 **전제** 아래에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예언자를 나누는 기준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전기 예언자(Former Prophet)**와 **후기 예언자(Later Prophet)**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고전 예언자(Classical Prophet)**과 **점술 예언자(Mantic Prophet)**입니다.<sup>1</sup> 왜 갑자기 예언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지는 그냥 쪽 읽어보시면서 이해하세요.

---

1. 이 분류에서 고전 예언자와 점술 예언자라는 번역은 좀 유치합니다. ^^; 그냥 Classical Prophet과 Mantic Prophet이라고 영어로 알아두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 Mantic Prophet이라는 말은 뭐냐면, **앞 일을 예언하는 예언자**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Classical Prophet의 역할은 Mantic Prophet과는 다르다는 뉘앙스로 이해하시면

### 성경의 순서에 따른 분류

Former Prophet: 여호수아-열왕기

Later Prophet: 이사야-말라기

Former Prophet (FP)와 Later Prophet(LP)는 성경의 순서에 따른 분류입니다. 여호수아와 열왕기에 등장하는 예언자(또는 선지자)들은 모두 FP 라고 말합니다. FP들은 자기들의 책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이사야는 예외). 대신에 여호수아부터 열왕기에 이르는 이야기(Narrative) 속에서 예언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했습니다. 저는 설명하고 있으니 전도사님께서서는 FP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는 성경을 읽으시면 찾아보세요. 제가 누구 누구라고 써 드리는 것보다는 본인이 성경을 읽으면서 선지자들의 이름들을 적어나가시면 (사무엘상에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선지자들의 무리들도 있으니 그것은 그냥 '많은 선지자들'이라고 하시고요)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LP들은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성경에 자기의 이름으로 된 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예언자들입니다. 이들의 신학에 대해서는 각 성경마다 다르므로 수업시간에 배우셨을 겁니다. 기억이 나지 않으시더라도 구약성서 개론서들을 찾아보시면 금방 기억하실 거예요.<sup>2</sup>

### 시대와 대가에 따른 분류

Classical Prophet: 이사야-말라기

Mantic Prophet: 고대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CP와 MP는 시대에 따른 분류입니다. 8-5BCE에 활동한 예언자들을 CP라고 부르고, MP는 돈을 받고 앞 일을 예언하는 예언자들입니다. MP는 시대적인 분류가 아니라 대가를 받고 예언을 하는가의

---

되겠지요?

2. 평신도들을 위한 성경 통독용 교재들-예, 어 성경이 읽어지네, 성경 파노라마 등등-은 평신도에게 간단하게 성경개론을 가르칠 때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전도사님께서 성경을 읽는 눈을 가지고 스스로 파악하기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교재들이 성경을 보는 Stereo type이 되어서 성경을 창조적으로 읽는데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구약개론시간에 소개 받은 책들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입니다. 돈을 받지 않고 예언하던 예언자들 중에서 8-5BCE에 활동하던 예언자를 CP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 CP중에서 특별하게 722BCE(북왕국의 멸망)-622BCE(요시아의 종교개혁)사이 100년간 활동하였던 예언자들(사람들)을 *Pre-Deuteronomist*라고 부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나?"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삼상 13:8-10).

전도사님께서 질문하신 위의 성경구절에서 전도사님은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사울이 레위 사람 제사장 사무엘이 오기 전에 다급해서 사무엘 없이 자기 맘대로 제사를 드렸네!" 제 추측이 맞다면 전도사님께서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잊고 계신 겁니다. 그것은 **사무엘 역시 레위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은 **에브라임** 사람입니다 (삼상 1:1). 그러니 전도사님의 기준으로는 사무엘 또한 제사드리기에 자격이 없는 사람인 셈이지요. 학자들은 사무엘이 성경에서 가장 독특한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사무엘은 사사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예언자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세가지의 역할을 다 한 사람은 사무엘 밖에 없습니다. 모세도 스스로 제사를 직접 드려본 적이 없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내놓은 답은 **성전이 세워지기 이전의 시기에는 제사장의 역할이**

**불분명하였다**는 겁니다. 비록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에 제사장에 대한 규정이 있기는 하였지만, 흩어져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을 곳곳, 특별히 레위인들이 있지 않은 마을에서는 레위인들의 하는 일을 일반 사람이 대신하기도 하였다고 말합니다.

가장 좋은 예로는 **사사기 17**장에 나오는 **미가**이야기 예요. 미가가 산당을 세우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자기 아들 중의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지요. 또 기드온도 그렇습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이 여호와와 사자를 만난 후에 24절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살롬**이라고 부릅니다.<sup>3</sup> 그리고 또다른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제가 말씀드린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역시 에브라임 사람으로 제사장 엘리의 집에서 자라기는 하였지만, 제사장이 될 수 없는 혈통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였고, 백성들을 판결하러 돌아다니는 **사사**의 역할을 하였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의 역할을 했으니 말이지요. 그래서 벨하우젠은 "레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하나의 **지파**였다기 보다는 오늘날의 **목회자**의 개념으로 **레위**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 봐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시대도 이해가 됩니다. 다윗의 경우는 전도사님께서 생각하신 것처럼 단지 **다윗이 제사장처럼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에게 축복**하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의 일인 **여호와와 궤를 메고 옮기는 일**까지 했습니다(삼하 6장). 하지만, 이 역시도 성전이 세워지기 이전에 벌어진 일입니다.

성전이 세워진 이후로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서 떨감을 모으고, 성전의 기물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전문적인 일들을 도맡아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거룩한 사람들로 구분하여서 일반인들과는 다른 기준에서 움직이도록 하였지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게 관리감독했습니다. 비로소 **성전제도**가 확립되었다고도 말할 수 있지요. 전도사님께서 말하던 시대는 모두다 성전이 세워지기 이전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비록 율법으로 구분해 놓기는 하였지만,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았던 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3. 성경에서 "제단을 쌓았다."는 이야기는 "제사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 두번째 \*\*\*

두번째의 답은 매우 신앙적으로 평신도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는 설명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사울의 시대에는 사무엘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시대에는 아비아달이 있었지요(삼상 22:20-23).<sup>4</sup>

여호와와 그의 궤를 떼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삼하 6:17-19)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렸다."고 하는 표현이 제사장의 직무를 빼앗은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는 일을 제사장 아비아달이 하였으나 제물을 드린 것은 다윗이 맞으니까 말이지요. 더군다나 레위기의 제사법(레 1-7)에 의하면 제물을 가져간 사람이 제물에게 안수하고 죽이고 각을 뜨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아마 다윗이 "베로 된 에봇을 입었다."(삼하 6:14)는 말이 마치 다윗을 제사장처럼 여기게 할 수 있는데, 베로 된 에봇을 입는 것 역시,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는 기드온, 미가의 아들, 사무엘, 그리고 다윗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를 드릴 때에 에봇을 입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에 입었다고도 설명합니다. 말인즉슨, 제사장의 복식으로 에봇을 입게 하였지만, 제사장만 입을 수 있었던 옷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다는 거지요.

이 모든 설명과 더불어 전도사님의 마지막 질문은 이렇습니다. **그럼, 왜 사울의 제사는 받지 않고 다윗의 것만 받으셨는가?** 이 질문은 왜 다윗의 제사를 받았는가?가 요지가 아니라, 사울의 것을

---

4. 아비아달은 정말 전도사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레위 집안, 아론의 후손입니다.

왜 받지 않으셨는가?가 궁금하신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제 대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 지역 나라에서 전쟁을 하기전에 이 전쟁을 해야하는지 말아야하는지 하나님에게 물어보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었고, 또 전쟁을 하기전에 **반드시** 해야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는 이것을 하나님에게 물어볼 사람, 사무엘이 아직 오지 않았던 것이지요. 상황이 급박해지자 사울이 그냥 제사를 드린 겁니다.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것인데, 사울은 이렇게 드리는 **제사가 전쟁을 치르기 위한 메뉴얼 중의 하나**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해야하는 사무엘이 오기 전에 내가 해버리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누구라도 제사를 드리고 나면 전쟁을 할 수 있는 거라는 안일한 생각때문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사무엘로 부터 책망을 드린 것은 사울이 직접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제사를 전쟁을 위한 하나의 메뉴얼로 치부**했기 때문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듯싶습니다.

\* 전도사님의 짧은 질문에 대한 긴~ 대답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